

서울시 “몰카 뿌리 뽑는다”

공공화장실 2만여 곳 매일 점검

‘안심 화장실 추진계획’ 발표
민간개방 화장실 주 2회 점검
공용화장실 분리 등 개선 추진

서울시는 오는 10월부터 시민들이 불법 촬영 걱정 없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 화장실 2만여 곳을 1일 1회 이상 매일 점검한다. 공공화장실 상시 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공용화장실을 분리한다. 민간화장실 자체점검을 활성화하고,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본지 7월16일자 23면 참조〉

서울시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불법 촬영 걱정 없는 안심 화장실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시는 공공화장실 내 흡집, 나사 구멍, 훼손설비 등 불안감을 유발하는 흔적이 있을 경우 여성안심보안관, 자치구 점검 인력, 건물 관리인을 통해 바로 보수하도록 조치한다.

주유소 등 민간개방 화장실 3803곳에 대해서도 주 2회 이상 정기점검을 진행한다. 점검단은 사회적 일자리나 청소년 자원봉사단 등을 활용해 구성한다.

공공·민간개방 화장실 중 유흥가 주변이나 이용자 수가 많은 화장실, 시설이



여성안심보안관 활동 모습. /서울시

노후하고 민원 발생이 잦은 화장실 1000여곳은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서울시 여성안심보안관이 주 1회 이상 집중 점검한다.

현재 서울 시내에는 총 2만554곳의 공공화장실이 있으며, 이를 매일 관리하는 인력은 8157명이다. 시는 관리인력을 총 투입해 몰카를 점검한다. 이제 1명이 매일 2.5곳의 화장실을 점검하게 된다.

민간화장실 자체점검 활성화를 위해 점검 장비 임대 확대한다. 시는 건물주 등이 자체 점검을 원할 경우 장비를 임대

해주고 있다. 점검 장비를 25개에서 100개로 늘린다.

시는 화장실 남·녀 분리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신·개·중축되는 남녀 분리 의무 비적용 건물 대상이 화장실을 분리하면 해당 면적을 건축 연면적에서 제외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남·녀가 분리된 화장실이 있을 경우 건물 매도 시 양도세를 감면해 주는 방안을 국세청에 건의했다.

남·녀 분리가 가능한 화장실에는 분리 시공 비용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분리가 불가능한 곳은 증설 분리 사용을 유도한다. 출입문 자동 잠금식 교체, 비상벨, 출입문 CCTV, 밝은조명 설치비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안에 관련 조례를 개정해 지원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민간 화장실의 경우 공공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지만, 환경개선을 지원해 남·녀 화장실이 최대한 분리되도록 하겠다”며 “공용 화장실이 분리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건의, 자치구·건축사협회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 관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플라워트럭’ 창업지원 참가자 모집

총 13팀 선발... 교육·마케팅 지원

서울시는 ‘도시청년이동식플라워마켓(트럭) 창업지원사업’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이동식 플라워마켓은 인테리어나 공기정화 식물, 화분을 싣고 이동하며 판매하는 트럭이다.

총 13팀을 선발해 이동식 플라워트럭 1대(봉고 1t, 외부디자인 포함)와 차량 운영비, 창업운영비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시는 창업교육과 마케팅을 지원해 성공적인 창업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만 18~39세 미취업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3일부터 13일 오후 6시까지이다. 희망자는 사업신청서(창업계획서 포함)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서울시농업기술센터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시는 1차 서류심사에서 3배수를 선발한다. 2차 심층 면접에서 18팀을 선



발한 뒤 종합심사를 거쳐 최종 13팀을 선발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서울시농업기술센터 환경농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강대경 서울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화훼산업 활성화를 위한 도시청년 이동식 플라워마켓 창업에 경쟁력 있고 창의적 플라워마켓 아이템을 가진 청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취업 취약계층에 일자리 120개 제공

내일 서울광장서 일자리 박람회
결핵검진 등 심신 건강관리 강화

서울시는 4일 오후 2시 서울광장에서 노숙인, 쪽방 주민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한다.

박람회에는 ▲업체와 면접을 보는 채용관 ▲이력서 작성과 증명사진 촬영 등을 하는 취업지원관 ▲결핵검진과 혈액검사 등 건강검진을 진행하는 건강관 등이 마련됐다. 시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 취약계층에게 120개의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난해 열린 박람회에서 시는 취약계층 108명에게 일자리를 알선했다. 올해 박람회에는 참여자에 대한 결핵검진·혈액검사·미술치료 등을 추가해 심신 건강관리 분야를 강화했다.

시는 상대적으로 건강한 근로 희망자에게 민간 일자리, 일자리 갖기 사업(병원·복지시설 보조, 공원청소, 재활용 분류작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고령이거나 근로능력이 부족한 경우



일자리 박람회 모습. /서울시

특별 자활 근로(환경미화, 공원 청소 등)나 단순노동 작업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박람회에 참가하지 못한 사람은 31일까지 서울노숙인일자리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구직신청을 하면 된다.

황치영 서울시 복지본부장은 “참여자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이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참가자들이 일자리 박람회를 통해 우리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서 함께 설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광화문 수놓는 축제 퍼레이드

2일 서울 광화문 세종대로 보행전용거리에서 롯데월드 어드벤처 연기자들이 로티스 할로윈 파티 퍼레이드를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제당 배림, 수묵에 묻힌 인생’ 특별전

5일부터 11월 4일까지 전시

서울시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배림 가옥에서 ‘제당 배림, 수묵에 묻힌 인생’ 특별전을 연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배림 작고 50주기를 맞아 한국화에 한 획을 그었던 배림의 삶과 작품세계를 재조명하기 위해 기획됐다.

제당 배림(사진)은 1968년 9월 5일 5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홍익대 미술대학 교수이자 국전 심사위원을 역임한 그는 청전 이상범 이후 또 다른 한국산수의 전형을 마련했다고 평가받는 인물이다.

배림가옥은 제당 배림이 생애 말년을 보낸 곳으로 등록문화재 제85호로 지정됐다. 이곳에서는 1950년대 북촌에 위치한 전형적인 근대건축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지난 4월부터 내셔널트러스트 문화유산 기금이 위탁 운영을 맡아 한옥을 보존하



고, 시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이번 특별전에는 추심상로등작품 4점과 화구, 인장 등 제당배림의 유품 100여 점이 전시된다. 특별전시 기간 중에는 전시와 연계된 강연도 운영된다. 오는 9월 8일 진행되는 정희정 한국미술연구소 선임연구원의 강연을 포함, 총 다섯 차례의 강좌가 준비됐다.

배림가옥은 화요일~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월요일과 법정 공휴일에는 휴관한다. 전시 관람료는 무료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림가옥으로 문의하거나 서울한옥포털 누리집을 참조하면 된다. /김현정 기자

서울시 중구

‘축제야 학교가자’ 운영

서울 중구는 오는 11일부터 팔동 남학당에서 축제리더 양성과정인 ‘축제야 학교가자’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과정은 10월에 있을 ‘우리동네 이웃사촌 마을축제’를 앞두고 행사의 기획부터 참여, 실행, 평가까지 축제 전반을 다루는 마을축제학교다.

축제야 학교가자는 ▲중구 축제의 판을 바꾸다, 주민이 만드는 축제 ▲주민주도형 지역축제 사례 ▲마을축제 ‘동네야 함께 놀자’ 등 5개 강좌로 구성됐다. 멘토와 함께 축제를 기획해보는 실습시간도 마련됐다.

강좌는 9월 11일부터 10월 16일까지 매주 화요일(추석연휴 제외) 오후 5시에 열린다. 교육 후에는 우수축제 현장답사가 진행된다.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참여자는 ‘우리동네 이웃사촌 마을축제’ 기획자로 활동하게 된다. /김현정 기자

금천구 평생학습센터 ‘모두의 책방’ 개관

‘시민의 서재’ 콘셉트... 개인서가 제공

서울시는 오는 15일 금천구 평생학습센터 모두의 학교 2층에 도서관 ‘모두의 책방’이 개관한다고 2일 밝혔다. 모두의 책방에는 책을 매개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전시가 운영된다.

책방의 콘셉트는 ‘시민의 서재’이다. 외부로 대출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대신 이용자가 읽던 책을 보관했다가 원할 때 언제든지 다시 와서 읽을 수 있도록 개인 서가를 제공한다.

책방에는 사람(인물), 시간(역사), 공간(지역) 총 3분야, 2000권의 책이 배치된다. 시는 2020년까지 9000여 권의 책을 구비할 계획이다.

책방 이용시간은 화~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다. 회원가입 등 별도의 절차 없이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책방에서는 ▲재활용 팝업북 만들기

▲나를 표현하는 책 만들기 ▲삶의 기록, 지역 어르신들의 추억 알기 전시 등의 이색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시는 방문 이용이 어려운 시민을 위해 주변의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움직이는 모두의 책방’을 운영한다. 책 장기간대여, ‘사서에게 물어보세요’ 서비스를 등을 제공한다.

책방 개관일에는 시민과 함께하는 개강행사 ‘모두 배우장’이 개최된다. 1층에서는 10팀의 독립작가들이 운영하는 플라워마켓, 2층에서는 책을 주제로 한 토크콘서트 열린다. 3층에서는 동네 책방 주인이 추천한 우수 독립작가들이 진행하는 ‘작가의 방’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이날 모두의 학교를 찾은 시민들에게는 개강 프로그램을 원데이 클래스로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모두의 학교로 문의하면 된다. /김현정 기자